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아동의 효과적인 가창지도의 도입방법

- 초등학생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임 미 연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아동의 효과적인 가창 지도의 도입 방법

- 초등학생 중심으로 -

The Introductive Ways of Effective Singing guidance  
for Children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임미연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 아동의 효과적인 가창 지도의 도입 방법

지도교수 박 계

이 논문을 음악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임미연

2006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임미연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ii
그림 목차 .....	iii
악보 목차 .....	iv
ABSTRACT .....	v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	2
II. 이론적 배경 .....	3
1. 현재의 가창 지도 교육의 실태 .....	3
2. 가창 지도의 중요성 .....	6
3. 가창을 통한 아동의 음악 교육 .....	7
1) 아동의 노래 발달 단계 .....	7
2) 아동의 성역 및 음역 .....	8
4. 그룹지도를 통한 가창 지도 .....	10
1) 그룹지도의 도입 .....	10
2) 그룹지도의 필요성 .....	10
5. 놀이를 통한 표현적인 음악교육 .....	12
III. 효과적인 가창 지도 방법 및 지도 사례 .....	14
1. 효과적인 가창 지도 방법 .....	14
2. 이상적인 발성 지도 방법 .....	15
1) 자세 .....	16
2) 입 모양 .....	18
3) 호흡 .....	18
4) 발성과 공명 .....	19
5) 발음지도 .....	23
3. 가창지도의 실 예 .....	27

IV. 두성 발성 및 아동의 가창 지도 교사의 자질과 역할 .....	46
1. 두성 발성에 대한 논란 및 두성 발성의 특징 .....	46
2. 아동 가창 지도 교사의 자질과 역할 .....	48
V. 결론 .....	51
참고문헌 .....	53

## 표 목 차

표1 .....	8
표2 .....	9

## 그 립 목 차

그림1 .....	16
그림2 .....	17
그림3 .....	17
그림4 .....	20
그림5 .....	31
그림6 .....	33
그림7 .....	44



## 악 보 목 차

악보1 실제적인 발성을 위한 연습곡 .....	21
악보2 쪽쪽 불뚝 짱짱.....	22
악보3 옷놀이.....	29
악보4 네잎클로버.....	30
악보5 미술시간.....	36
악보6 봄 동산 .....	37
악보7 가을 들판 .....	38
악보8 토끼풀.....	40
악보9 파랑 색종이 .....	41

## ABSTRACT

### The Introductive Ways of Effective Singing guidance for Children

mi-youn Lim

Advisor : Prof. kay Pahk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Today, we live in a reality which the loss of human nature, negligence of life and dehumanization have spreaded. So, we would like to express musical activities as one of the methods that give latitude of life and warm mind for restoration of human nature. Nowadays, most people don't recognize enjoyment or expression about music constructively. Therefore, this study showed whether singing guidance through vocal music makes an offer effectiveness or not to children. The guidance of small-sized vocal musical circle helps children to get healthy body&mind and upright character as well.. The singing guidance for children in a small-sized group aims at an unific human nature's developments like cooperative sprit, pleasure, self-confidence, accomplishment and social development. For this goal, this study's theoritical basis is made through bibliography related to singing. Also, observation studys were done through children who are learning singing guidance in various private musical institutes. In this study, we presented various programs such as play learning using body and study linking art and concrete ways like musical artistic experiences, emotional purification, development of originality, voluntary participation helped children's self-development. Through these ways, we confirmed conclusion that each children could increase each self-developing ability. Therefore, instructors who teach singing guidance must help children to foster gradate musical ability and cause musical interesting in consideration of children's preference. Also, they must guide attitude to know recognize musical sincere value and enjoymen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 교육은 예술교육의 일환으로서 전문적인 예능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예능을 통한 인간교육”<sup>1)</sup>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서 조화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음악 교육에서는 기본 영역을 가창·기악·창작·감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그 영역 중에서 가장 일차적인 음악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가창”이며 이러한 행위의 하나로서 노래부르기, 즉 가창은 음악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즐거울 때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은 것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능으로서 특히 아동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메마른 정신의 이완과 동시에 아동들이 자신의 느낌을 보다 진솔하고 명확하며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코다이(J. Kodaly)는 목소리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악기”라고 했다. 가창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인 목소리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음악교육에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 부분이라 하겠다. 악기에 의해 음악교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 노래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의 기초가 되므로 완전한 음악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노래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sup>2)</sup>

효과적인 가창 학습을 위해서는 보다 좋은 가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능적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듣고 부르기로 끝나 버릴 수 있으며 기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가창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린이들이 보다 더 음악을 음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들에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 유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한 음악교육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모든 음악 지도가 그러하듯 가창 영역의 지도에 있어 가능한 어릴 때부터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6년 동안이라 볼 수 있다. 요즘 초등학교 아동들 사이에서는 창작동요가 인기를 끌고 있고 노래 부르기에 흥미를 가진 아동들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지

1) 김종철, 「기능의 교육」(서울:배양사, 1969), P117

2) J. L. Musell(1987)(한국 음악교재 연구회 역) “음악교육과 인간 형성”(서울 : 세광 음악출판사) P30

도나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의 가창지도는 뚜렷한 지도 방향이나 체계를 가지고 행해지지 않고 성악 전공자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개인 지도를 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는 아동들도 그것을 수용하기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은 어른에 비해서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들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발성법 개발과 그의 지도 방법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가창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발성법과 가창을 위주로 한 교육으로서 초등학교 아동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그룹 지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가창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본 논문은 문헌조사 방법과 참여 관찰법과 실험 방법에 의존하였다. 여기서 문헌 조사는 아동의 가창지도와 관련된 연구 논문, 학위 논문 관련저서 등을 포함하였다. 참여 관찰과 실험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사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성악반의 한 클래스(8명 기준)와 본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성악반 중 초등학교 아동 한 개 반 8명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학생의 연구 관찰 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의 1년 간에 한정하였다. 아동의 가창 지도의 이론적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기보다는 실제 지도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실제 방법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동의 가창지도시의 발성과 소규모 그룹지도를 통하여 음악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로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창 교육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성인 중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통합된 가창 지도 활동으로서 소규모 그룹 지도를 선택하였다.

표현적인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아동기 또한 놀이 활동도 자유로운 경험의 기회로 삼아 아동기 연령인 초등학교 1~6학년의 아동에 제한을 두었다. 개인 음악 학원에서 운영하는 성악 반을 선택하여 기존의 틀에 박힌 모방적인 가창 교육 방향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표현적인 종합 교육을 실제 관찰하여 연구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현재의 가창 지도 교육의 실태

음악이란 음악인들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음악을 지도하는 음악 전문가에 있어서는 음악을 하는데 있어 음정이나 리듬 박자의 문제에서 틀리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음악 전문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나 음악에 대해 전문가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람에게는 ‘틀리거나 틀리지 않고’의 문제나 ‘기계적인 소리든지, 감정적인 소리든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초등학교의 음악 교실이나, 현재 교과서에 실린 곡들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많이 향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생활성 결여’와 ‘획일적인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행위 사물과 인간 관계에 대한 느낌, 각자 자신의 생각의 표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전달은 타인과의 공감에 예술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이란 점을 생각할 때 생활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들이 음악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활 속에서의 여러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타인과의 공감하는 훈련들을 현재의 교과 과정 속에서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sup>3)</sup> 어떠한 종류의 학습이라 할지라도 행동에서 오는 구체적인 경험이 아주 중요하므로 교과서 안에서의 지식의 획득이 아닌 실제의 생활에 의한 학습이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 ‘틀리고, 틀리지 않고’ ‘기계적이고, 기계적이지 않고’의 기계적인 기능의 연마와 획일적인 지도는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현실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아가 학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들의 미래 지향적인 장소이며 음악적인 감수성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음악에서는 천재적인 개념과 연관되는 잘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유아기에나 어린 시절에 노래를 아주 잘 부르거나,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는 전혀 천재적인 음악적 성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지나친 부모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릴 때에 재능이 있다는 판정이 오류일 수도 있고 그 재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 맞게 지도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감수성이 획일적이고, 기계적이며 고지식한 교육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도 문제이지

3) 이영미 「아동의 삶과 동요적 감수성」 (한국 음악 교육학회, 음악 교육 연구집 1993) P54-55

만 고정되고 한정된 사고 방식과 기준에 의해서 음악성의 진실 여부를 판정해 버리는 것은 음악적인 상상력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해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sup>4)</sup>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운동회인 가을 운동회에서 조차도 율동이나 매스 게임에 사용하는 음악들이 예전에는 기악음악이나 세미 클래식, 동요, 클래식한 무용 음악이 주종을 이루었던 반면 현재는 대중가요 내지는 빠른 랩 수준의 음악속에서 몸만 흔들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우리의 학교 운동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정통성이 없는 음악이라는 이유로 대중음악이나 상업성<sup>5)</sup> 음악을 지양하고 있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의 행사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음악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음악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몇몇의 대중 가요들을 살펴보면 저돌적이고 파괴적이며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아동의 정서에 때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음악이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인간형성과 인격형성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요는 어린이들의 정서적 감정을 기본으로 하여 이것을 예술적 감각으로 표출하는 방법의 하나이다.<sup>6)</sup> 이런 의미에서의 참다운 동요란 노랫말에서는 문학성을, 작곡에서는 음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인격형성과 함양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모방이나 호기심이 매우 강한 때이기도 하므로 어린이들에게 사회적으로 좋은 간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지도층이나 방송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어린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동요 방송 시간을 대폭 증가시키거나 동요를 어린이들로 하여금 생활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과 협조가 따라야 하겠다. 하지만 학교 교육의 이외의 간접적인 음악교육의 환경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중 음악이나 상업성 음악에 대하여 무조건 거부 반응을 갖거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내어 우리의 학교 교육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의지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과거에만 집착하는 교육도 안되며 현재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음악적인 요소를 학교 음악 교육의 제재 속에 받아들여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이 되어야겠다.

현재의 교사의 가창 지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가창 수업 시간의 주된 교사의 역할을 다양한 발성 기능의 조정력을 기르기 위한 통찰력 있는 지도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응용 연습곡과 합창 연습시 발성에 있어서의 지도법은 종래 지도방법의 틀을

4) 안재신 「음악과 음악 교육에서의 상상력」 (한국 음악 교육학회 음악교육 연구집) P13

5) 상업성 음악이란 일반적인 CM Song들을 비롯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창작되거나 빌어다 쓰는 음악을 뜻한다.

6) 한용희 「한국의 동요」 (서울 : 세광 음악 출판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신체가 반응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발성을 억제하는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발성의 기능을 신체적인 조절을 하여 학생들을 격려함으로써 발성의 교정을 자주 받도록 한다. 음악이 아동의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지만 과중한 사무 업무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의 경우 교사들이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음악 문화에 관심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접하고 있는 교사는 극히 적기 때문에 교사는 바람직한 음악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각종 음악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해야 함이 절실하다. 교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학생이나 피아노 전문가를 동원한 반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음악 시간을 교환 수업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반주 능력이 되는 학생들을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근래에 와서는 초등학교에 음악 전담 교사가 있어서 수업하는 형식이 늘어났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아동들로 하여금 음악적인 느낌을 아동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음악적인 분위기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창 수업시 교사가 올바르게 고운 소리를 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모르는 교사가 지도함에 있어 크게 소리만 지르게 하는 식의 가창 수업은 아동들로 하여금 목을 많이 피로하게 하고 노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와 창의성 경쟁의 시대다. 이에 예술 교육은 문화로부터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에 가창 교육도 아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을 통하여 서로 다른 느낌의 표현이나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도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 의해 많은 노력과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억압적이고 성인 중심적이고 이론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즉 과거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부터 탈피하는 반면 아동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중시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성장을 조성하는 아동 중심적인 가창 지도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음악이나, 특정한 문화, 특정 해석과 양식 등의 음악을 강요하는 즉 아동의 음악적 상상력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여 전문 음악가를 양성하는 대신에 독창성있는 음악과 상상력이 풍부한 음악, 개성있는 음악가를 기르도록 함께 힘써야겠다.

## 2. 가창 지도의 중요성

음악은 현대에 이르러 많은 발달 과정을 거치지만 음악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일차적인 음악의 영역인 ‘가창’이 인간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악보가 없었어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한다. 또한 아동들은 분명한 말을 할 수 있기 훨씬 이전부터 가끔씩 뚜렷한 음정이나 선율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노래는 근본적으로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며, 욕구이며 아동들에게는 본능적인 언어인 것이다. 또한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이며 인간의 본성인 창의적 표현 능력과 감각 능력을 육성시켜 아름다운 인성과 정서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초등학교에서의 가창 교육은 성악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자기의 목소리를 통하여 음악을 표현하고 체험함으로써 음악을 탐색하고 노래 부르기를 통한 자기 구현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노래는 건강을 강화시키고 교양을 넓히며 지성을 세련되게 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여 행복과 함께 인생에 풍취를 더하여 준다. 이와 같이 가창 학습은 음악 교육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학교 음악에서 발성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교사의 지나친 기술적인 요구는 아동들의 자발적인 가창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음과 동시에 가창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기 쉽다. 그래서 아동들이 부담없이 노래를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부르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가창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래부르기는 누구나 지니고 있는 악기인 목소리에 의한 가장 손쉽고 직접적인 음악적 표현 활동이다.

둘째로, 음악적 성장을 촉진시킨다.

셋째로, 아동이 최초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음악’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양식으로 사회적 기술이다.

해마다 열리는 창작동요대회나 그 모음곡집, 음반, 또 각종 노래대회로 인해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노래는 많이 접근되어 있고 흥미 있는 관심분야이다. 또한 아동의 음악적 교육의 기초로 당연시되었던 피아노 개인레슨만큼 노래 공부도 개인·그룹 레슨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에 제대로 된 성악교육의 첫 걸음은 매우 중요하다.



### 3. 가창을 통한 아동의 음악교육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에 의하면 가창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고 학생들의 가창력을 길러야 하며 자기의 느낌을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창의력을 기르고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되는 것을 초등학교 가창 교육의 큰 의의로 보고있다.<sup>7)</sup>

8세부터 13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화음 감지력이 향상되고 여러 측면에서 고른 음악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이때 독창, 중창, 합창 등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창의적인 표현력을 최대한 길러 주어야 하며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을 많이 감상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 1) 아동의 노래 발달 단계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아동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한다면 아동의 어느 쪽에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학년마다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은 길애경, 임미경의 「초등 음악 지도법」에서의 아동의 신체 발달과 음악적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 (1) 초등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목소리는 아직 성대와 허파가 발달되지 못해서 대체적으로 소리가 작고 음역이 좁다. 아동들은 어떤 음역에서는 음정을 맞게 부르다가도 그 음역을 벗어나게 되면 음정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교사는 아동의 음역에 맞게 부를 수 있도록 조옮김을 해야 한다. 아동들이 호흡조절을 제대로 못하여 프레이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음악에 따라 팔로 원을 그린다든지 신체적 활동을 접목하여 음악이 아동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한다.

##### (2) 초등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들은 초등 초기의 1, 2학년보다 성대와 허파가 조금은 더 많이 발달되어 음역이 넓어지고 호흡조절이 훨씬 용이해진다. 자연히 음역이 높은 노래도 쉽게 부를 수 있고 호흡량이 많아져 숨쉬는 곳을 지킬 수 있어서 프레이징을 잘 나타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호흡을 이용하여

7) 교육 인적 자원부(200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P20

8) 길애경외 1인 「초등 음악 지도법」 (서울:수문당) P10-12

리코더와 같은 관악기도 부를 수 있게 된다.

### (3) 초등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장이 비교적 더 빠른 시기이며 일부 남학생들 중에는 변성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음성이 낮아져서 1옥타브 내려서 발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전 단계와는 발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두성 발성을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화음감이 발달하고 음역이 넓어지며 중창, 합창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음악의 짜임새도 구별 할 수 있게 된다.

## 2) 아동의 성역 및 음역

### (1) 성역

일반적으로 성인은 2옥타브의 성역을 갖는다. 이에 비해 아동의 성역은 의외로 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수록된 동요곡을 선정할 때나 아동을 위한 새로운 동요를 창작할 때에는 아동의 성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성역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확장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음역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듯이 성역도 성별,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성역의 발달에 대하여 Shoen에 의해 조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표1>

성역의 발달

연령	남	여
4세	C' ~ G' #	C' ~ A'
5세	C' ~ A' #	C' ~ B'
6세	B ~ A' #	C' ~ A' #
7세	A # ~ C''	B ~ C''
8세	A ~ C'' #	G # ~ D'' #
9세	G ~ D'' #	G # ~ D'' #
10세	G ~ D'' #	G # ~ C'' #
11세	F'' ~ D''	F # ~ D'' #
12세	E ~ E''	F ~ F'' #
13세	E ~ D''	F ~ F'' #
14세	D ~ F'' #	F ~ F'' #

위의 <표1>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4세 무렵에 겨우 5, 6도의 성역인 것이 7세에서 1옥타브 이상이 되고 12세 정도에서 2옥타브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2) 음역

다음은 다마오까 시노부<sup>9)</sup>의 아동의 음역에 관한 연구 결과이다.

<표2> 아동의 음악 능력 발달 및 음역

시기	아 동 기 (6세 ~ 12, 13세)					
	초		등		학 교	
연령	6	7	8	9	10	11 12
학년	1	2	3	4	5	6
음 악 표 현 능 력 의 발 달	감상	감각적·운동적 감수성을 주체로 하는 시기			감각적·운동적 감수성이 증대되는 시기	
	표현	표현력의 싹을 기르는 시기	표현력이 풍부해져 외향적 경향이 강해지는 시기		표현력이 증대되는 시기	
	이해		지적 이해력이 더해지는 시기		지적 이해력이 증진되는 시기	
	기타		도구·기계에 대한 흥미가 눈뜨는 시기			
비 고	음역					

위의 <표2>에서 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수성, 표현력이 증대되며 이해력도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동요를 잘 선택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동 발성을 지도할 때 고음역과 저음역의 발성이 해결되면 중음역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필요이상으로 고음역의 발성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중음역도 그런 방법으로 발성하려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고음역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되며 가창곡에서 가장 빈번히 사

9) 다마오까 시노부는 문학 박사로서 음악 능력의 계발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것도 출생직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심리학회 및 일본 응용심리학회, 음악학회의 회원을 역임하였다.

용되는 음악의 연습에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 4. 그룹지도를 통한 가창지도

##### 1) 그룹지도의 도입

그룹지도는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음악의 미적 체험과 정서의 순화, 창조성의 개발이라 할 수 있으며, 음악을 통한 자기 표현 등은 음악 교육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협조성의 육성, 여가 선용 등의 음악 외적인 즉 실용적인 덕목들이 구현되어야 한다.<sup>10)</sup>

요즈음 그룹지도의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나 어떤 교사들은 그룹을 지도하거나 개인 지도를 하면서 예술제 입선이나 기술적인 기능 연마, 레파토리의 증가 등의 결과에만 치중하여 이를 만족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이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룹지도의 장점인 서로의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증진시키며 타인이 필요로 하는 감정을 제공할 줄 알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심을 받게 하며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서 음악적인 자신감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sup>11)</sup>

가창을 위주로 하며 아동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그룹지도는 집단의 조화를 증진시키고 사회성을 원만하게 하는데 공헌하며 그룹을 통하여 음치이거나 내성적이어서 노래를 하지 않는 어린이에게는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게 하므로 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노래하지 않는 아이는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열등 의식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며 자연스럽게 노래하도록 도와주어 자기 발표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겠다.

그룹지도를 통한 가창 교육은 전문가를 만들거나 직업적인 연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동의 가창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를 도야하고 생활 속에서 음악미를 추구하여 한층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하도록 체험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는 바로 이러한 개성을 요구하는 시대이므로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을 필요로 한다.

---

10) 이흥수,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서울:세광 음악 출판사, 1990) P113

11) 무리이 야스지 외 3인 공저, 「음악 심리요법」(대한음악저작연구회, 서울·삼호 출판사 1991) P165-167

## 2) 그룹지도의 필요성

칼 오르프는 음악 교육은 일찍이 행해져야 하며 특히 목소리는 자연적인 악기로 가장 우위에 두었으며 어린이들에게 노래 부르기를 생활화시켜야 하고 가능한 존중과 서로의 관심으로써 대하고 음악적 소질을 발전 시켜야 한다고 했다.<sup>12)</sup>

서울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합창부의 단원 선발을 전인 교육이란 목표아래에 두고 선발 기준이 지금까지와의 고정된 틀과는 다르다고 한다. 3·4·5학년 아동을 기준으로 하되 노래 실력이 뛰어난 어린이 중심이 아닌 음감에 대한 지나친 컴플렉스를 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열등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아이들은 외모에 지나친 신경을 쓰고 있어 뚱뚱하거나 외모가 남보다 뒤떨어졌다고 느낄 경우 극심한 자신감 상실로 배움에 대한 의욕에 장애를 준다. 이런 경우 어린이들이 남들 앞에서 떳떳이 인정을 받았다는 기쁨으로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아동이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존재에 대한 중요성과 의의를 깨달아 서로에게 배려하려는 마음을 느끼게 함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 그룹지도란 종래의 교사와 학생의 1:1개인 지도에서 벗어나 3~8명까지의 아동의 집단 원리를 바탕으로 그룹 구성원간의 협동 정신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가창 교육의 효과와 감성을 신장 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다. 소규모 그룹 가창 교육은 보다 넓은 의미의 또래 집단안에서 단체 활동으로 단편적인 기계적 학습보다는 음악의 기본 개념을 몸과 마음으로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느끼게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가능성을 집단적 상황에 있어서 발휘되는 것이며 '자기 존중'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다.<sup>13)</sup> 이와 함께 가창 교육이란 연주를 통한 학습이므로 성대라는 악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영역과는 달리 악기 곧 성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발성이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의 발성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발성이나 그것의 모방에서 해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알맞으며 무리가 없는 발성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sup>14)</sup>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발성과 악곡의 특징을 살려서 개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악곡의 전체적인 흐름을 표현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소규모 그룹 지도에서 그 효율성을 찾아보도록 한다.

12) 박은주, 「어린이의 창작 동요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3) 무리이 야스지 외 3인 공저. 전개서. P159

14) 정세문, 「음악과 학습지도」(서울:창지사 1986) P195

음악 학습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는 또래 집단의 심리 속에서 훨씬 증가하여 집중력도 개인보다 그룹에서 더 오래가게 된다. 그러므로 또래 집단의 지도를 통하여 즐거운 생활과 사회성을 개발하고 자기 발의 장을 찾도록 해주는 방법의 하나로 소규모 그룹지도를 택하여 효과적인 가창 지도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음악적 집단활동에 있어서는 대개 허용된 분위기를 가지며 단순한 참가에서부터 탁월한 위치에 이르기까지 성공 체험의 기회가 연속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룹에 참가하고 수용됨으로써 놀이 문화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관하여 자기 자신보다 큰 전체속에서 동일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룹지도가 되어야 하겠다.

## 5. 놀이를 통한 표현적인 음악교육

‘놀이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한 프랑스의 철학자 몽타주의 지적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자라고 놀이를 통하여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놀이는 아이의 생활자체임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어린이의 생활은 놀이이다.’ ‘어린이는 놀이 가운데서 성장한다.’ 등은 어린이의 생활이나 성장에 있어 놀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놀이란 어떤 것이냐는 문제에 부딪히면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것이 되고 말 때가 있다. 놀이란 어떤 고정된 시간과 공간의 한계안에서 수행되는 즉,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그러나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자발적인 행위, 또는 일로써 그 자체에 목적이 있으며, 거기에는 어떤 긴장감과 즐거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술래잡기나, 가위바위보 놀이와 같은 일정한 형식이나 규칙이 있는 놀이라면 누구에게나 일목요연하지만 어린이들은 언제나 이러한 일정한 놀이만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의 놀이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 자신의 신체 리듬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은 자신의 신체 발달에 따라 그 신체가 갖는 리듬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언제나 무엇인가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놀이의 바탕이 된다. 놀이를 즐기고 놀이를 생활하고 놀이 가운데 성장하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 놀이 속에서 충분한 음악적 요소를 끌어낸다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된다.<sup>15)</sup>

노래함에 있어서도 모두같이 함은 물론 혼자 노래하기도 하며 자유스럽게 신체의 움직임은 통해 이해하면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습관을 놀이 속에서 유도해야 한다. 노래를 의사 소통으로, 움직임으로, 연극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음악에의 적용과 자기 조정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노래의 내용에는

15) 유덕희, 「놀이와 음악 지도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교육학회, 음악교육 연주집 제 13집, 1994) P25

음악 내적인 것과 음악 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고 가창 표현지도에서는 이들 모두다 중요하다. 가창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노래를 들려 줄 때에는 학습자가 어릴수록 음악의 외적인 내용에 먼저 관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음악 외적인 내용에는 주된 어휘, 동물, 경치 등이 있고 음악의 내적인 내용에는 기본박 흐름결의 특징, 음놀이, 가락의 특징, 적절한 빠르기 각 부분의 크고 작은 흐름결이나 가락꼴 등이 있다.<sup>16)</sup>

아동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부터 학습을 시작하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아동이 좋아하는 주위의 사물들에 관한 노래나 그것들의 이름을 응용하여 음악 수업을 할 때 동기 유발은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또한 어린아이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서부터 손뼉을 치거나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운동에 맞추어서 리듬적인 행동을 한다. 리듬연습은 훈련같은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하다. 즉 음악 기술의 기본은 놀이 또는 가벼운 시도로서 유도된 점도 많으나 음악 기술은 방법으로서의 본질에서 찾아낸 적합한 방법을 자기 모방적으로 되풀이함으로서 목적 활동에 정법을 얻으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개개의 방법이 자기 수련적으로 반복되고 기억되고 서로 연관되면서 음을 다루는 수단의 바탕이 되다고 볼 때 그룹지도의 놀이와 학습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듬어져 나가는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이러한 가창 지도 방법의 하나인 그룹지도의 실제 예를 들어 보겠다.

---

16)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서울:세광음악출판사) P145

### Ⅲ. 효과적인 가창 지도 방법 및 지도 사례

#### 1. 효과적인 가창 지도 방법

음악 때문에 인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삶 때문에 인간이 있고 교육은 인간의 삶 때문에 있는 것이므로 음악 교육도 음악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그러므로 음악 교육은 한 사회의 교육전반의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체성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음악적인 감수성 또한 음악 교육 전반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음악을 공부하는 일은 마음으로부터 기쁘고 여기에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 창조성 개발의 밑바탕이 되므로 기존의 형식이나 논리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려는 즉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욕이 먼저 싹터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음악 학습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항상 상상력을 자극하고 사고하게 하는 환경과 기회를 조성해 나가며 주관적인 해석이나 행동을 되풀이 하는 틀에 박혀서는 안 된다. 창의성의 개발을 의도하는 교육 현장이라면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그것이 창조적 해결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고와 사상을 자극하고 유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서의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창조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즉흥성은 곧 즉흥적 표현으로 표면적인 기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음악 사상을 중요 소재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즉흥성 개발의 중심은 마음으로부터 즐기고 감동하는 활동 속에서 아동의 생활 감정의 발로를 기반으로 음악적 감성과 적절한 기능을 길러 발전시키며 지향적인 음악성을 개발하도록 지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창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마음으로부터 음악적 개념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이 교사에 의하여 표현되어진 개념은 어린이들에게 별 의미가 없을뿐더러 쉽게 잊혀진다는 것을 교사는 알아야 한다. 아동들이 스스로 음악을 탐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습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이 음악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현장에서만 바람직한 음악적 독창성과 창조성이 개발 될 수 있다.

현재의 아동 가창 교육의 상황에 비추어 지향해야 할 성악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효과적인 지도는 흥미가 있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쉬운 문제에서 시작된

---

17) 이강숙 「음악 교육론」(김창남의 노래2, 실천 문학사) P26



다. 이는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에 감응하는 선천적 경향을 표현적 음미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둘째로, 아동의 동기 유발을 중심으로 한다. 음악에서의 동기 유발은 본질적으로 음악 자체에서 얻어지는 만족과 환희로서 노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가장 즐겁다고 여기면서 당연히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로, 노래는 감으로 받아들인 감명적 인상이다.

넷째로, 노래는 활동적인 과정이다. 이 활동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능동적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로, 고도로 개별화 되어있다. 선천적 재질과 현재의 그 자신을 이룩한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여 아동 개인에 따라 음악적 지식·이해·태도·감정이 모두 다르며 동질의 지도법 및 동기 유발의 방법도 모든 아동들에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로, 음악적 환경은 육체적·사회적 요인인 경험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노래를 존재하는 실체로서 듣고 감지 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기교와 음악에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람직하고 독창성 있는 태도로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표현으로서의 음악, 자기 표현의 능력을 기르는 수단으로서의 음악과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음악 등을 교육 현장의 중심 과제로 삼아 창조성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능에만 급급해하는 교육, 재능 있는 몇몇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급히 탈피해야 한다.<sup>18)</sup>

## 2. 이상적인 발성 지도 방법

발성은 올바른 자세와 호흡을 기초로 하여 공명을 통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좋은 악곡을 자신 있게 외워 부르며 자신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들은 고운 소리를 내는 것에 자신이 없으므로 노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활발하게 가창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고함을 지르는 듯한 거칠고 딱딱한 소리를 고운 소리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성 연습곡의 활용과 반복지도가 필요하다.

먼저 높은 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비강 공명에 의한 발성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들에게 무조건 이론적인 테크닉을 먼저 가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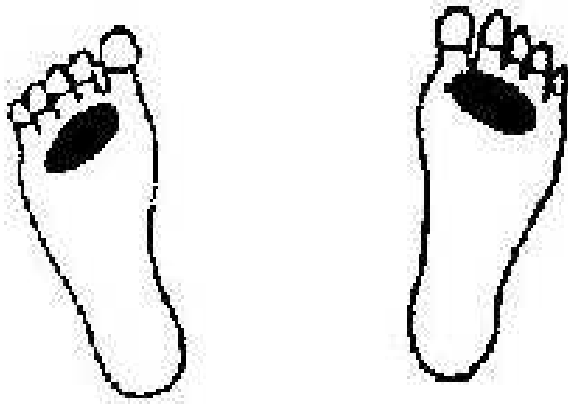
18) 정세문, 전계서, P53

쳐주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아동이 노래하는 것을 어려운 일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동은 발성을 재미없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발성을 하게 될 몇 가지 멜로디에 아동이 좋아할만한 발음을 붙이거나 그 발음들의 의미를 조합해서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발성을 이끌어 나가도 좋다. 그런 방법으로 재미있게 발성 시간을 이끌어 나가게 되면 아동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때에 쓰이는 발성은 단지 아동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발음으로 발성할 때 공명이나 호흡, 저음, 고음 연습 등 기능적인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 자세<sup>19)</sup>

먼저 온몸을 편안하게 릴렉스시킨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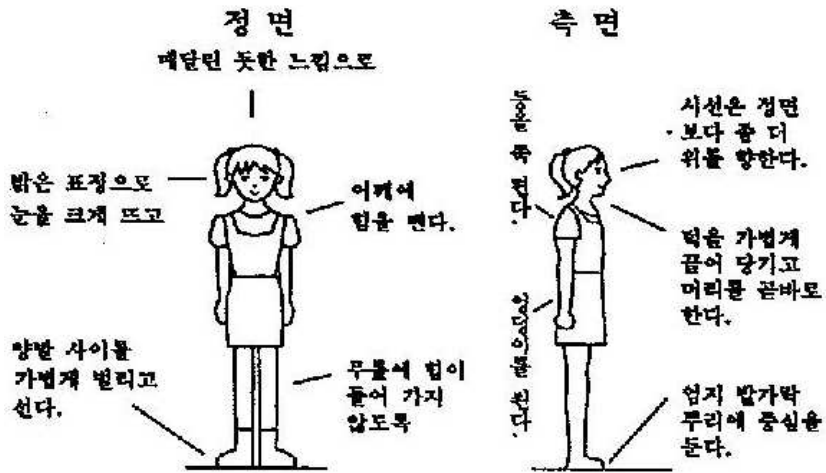


그런 다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펴준다. 시선은 정면을 향해 15도 정도 위에 둔다. 만약 땅을 보고 있다거나 비스듬히 시선을 둔다면 소리가 곧게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고 발바닥에 중심을 두는 듯한 느낌을 갖되, 몸 전체가 수영할 때처럼 힘을 뺀 유연한 상태여야 한다.

19) 박경희 「초등 피아노 교실」 (삼호 뮤직, 2003) p9

<그림 2>



앉아서 노래 부를 때는 의자 앞쪽에 앉아 허리를 펴고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자세로 있는게 좋다.

<그림 3>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를 때의 자세는 아주 중요하므로 올바르게 지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체적인 자세와 더불어 정신적인 불안감을 없애주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 할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가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이에 따른 음악적인 표현에 대해 최대한의 감정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내면에 축적될 수 있는 진실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가 음악의 미적인 가치 위에 고상한 감정으로 합쳐져 청중에게 들려질 때 예술의 가치를 한 층 끌어 올려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가창시 신체적 자세와 정신적인 자세는 매우 중요하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동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자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어 딱딱해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차분히 지도하고 모범적인 자세나 사진을 보여 주며 점차적으로 습득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2) 입 모양<sup>20)</sup>

좋은 입 모양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품을 하듯이 입을 벌리고 목을 뻗 다음 약간 미소 띤 얼굴 표정을 만드는 것이다. 살짝 웃는 얼굴이 되면 얼굴에 있는 모든 공간이 열려서 소리가 아름답게 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3) 호흡

가창에 필요한 호흡은 공명의 열림과 음향관의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복식호흡이어야 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발성의 가장 이상적인 호흡을 무의식중에 자주하고 있으나 노래에 자연스러운 이 호흡을 적용하려면 당황하게 되고 신체는 더욱 경직하게 된다.

먼저 호흡으로 복감으로 채운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시작한다. 만약 복식호흡을 하고 있다면 허리 둘레가 팽창해짐을 느낄 것이며,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면 가슴이 팽창해 들어 올려질 것이다. 호흡에 대한 의식으로 신체가 경직되기 쉽지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보면 꽃향기를 서서히 조심스럽게 맡을 때 재채기를 하려하는 과정, 하품을 서서히 하려 할 때, 휘파람을 불려고 할 때 등의 입안의 구조적 느낌에서 복식 호흡과 공명감의 열림을 알 수 있다.

- 숨은 코나 입으로 쉬되 깊이 들이 마실 때에는 코로 하는 것이 좋다.
- 노래하는 동안에는 갈비뼈를 들고 있는 기분이어야 한다.
- 숨을 길게 쉬려면 발 아래서부터 들이마시는 느낌으로, 짧게 쉬려면 복부에서 곧바로 들이마시는 느낌으로 노래하면 된다.
- 숨을 재빨리 들이마신 후 잠깐 기다렸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준비하는 순간에

---

20) 박경희 「초등 피아노 교실」 전계서 p9

공기의 압박을 양쪽 허리와 복부에서 느껴야 들이마신 숨은 아껴서 조금씩 내보낸다.

- 음이 올라갈 때는 숨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몸의 아랫부분에 있어야 한다.
-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항상 입 안쪽에 숨이 통과하고 있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 노래 부를 동안에는 항상 입 안쪽에 숨이 통과하고 있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 머리 속에도 마치 산소를 공급하듯이 숨을 보내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4) 발성과 공명

##### (1) 발성

노래를 부를 때 숨을 들이마시고 폐를 통하여 나오는 숨이 성대를 진동시킬 때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발성이라 한다. 가창 학습의 진행시 아동들이 무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자신감이 없는 작은 소리를 낸다거나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 노래를 부를 때 더욱 더 작은 소리가 나는 것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창 지도시 꼭 발성이 필요한 것이다.

문영일의 “아름다운 목소리”에서는 발성의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21)</sup>

발성의 과학기법 연구는 1854년 가르시아(M. Garcia)에 의한 후두경의 발명으로 성대에 대한 실질적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소리는 몸의 근육을 조절하여 호흡 기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어린 나이의 학생인 경우에는 주변 기관의 충분한 성장이 따르지 못하며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므로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

진성으로 노래를 하는 아동의 목소리는 가성과 두성으로 노래하는 성인의 목소리와는 분명 다르지만, 발성법에 있어서는 성인의 발성법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동은 어른에 비해 체구가 작다는 차이뿐이지 아동과 어른의 신체 구조는 같으므로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 일반적인 발성법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기는 하나 아동의 특성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발달 상태에 있고, 신체가 어른에 비해서 작으며 성대가 미숙하고 성량이 작고 성역이 좁으며 심리 상태가 미발달 상태이므로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미발달 상태의 발성을 보충해야 한다.

즉, 아동의 체력과 능력에 합당한 신체 각부에 걸친 훈련으로 자유롭게 신체를 조정하며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동 발성 지도의 핵심을 이룬다. 발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악가들도 어려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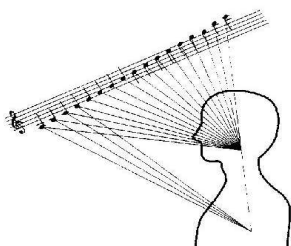
21) 문영일 「아름다운 목소리」(서울 : 청우 출판사 1984)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변성기 아동들의 경우에는 발성의 이상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사용, 조절하고 훈련하는 기본적인 발성법을 익혀야 한다. 인간의 발성 기관은 발성기, 호흡기, 공명기로 나누어지며 폐로 흡입된 공기는 후두로 보내져 성대문인 성문을 지나면서 일종의 음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성음이라 하고 성음은 곧 성대의 순수한 진동음이다. 이 성음이 공명감을 거치는 사이에 처음으로 목소리 곧 음성을 이루게 된다.

다음은 아동들에게 실제 발성지도를 할 때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실 예를 정리하였다.

- 먼저 하품을 크게 하면서 입을 연다.(이 때 목 안이 열리는 기분이어야 한다.)
- 입안을 충분히 둥글게하여 울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기분을 갖는다.
- 양손 검지손가락으로 콧볼 앞과 볼뼈 사이를 만져서 볼 뼈와 콧볼 사이에 긴 홈이 파이도록 입을 연다.
- 다시 하품을 하면서 냉기가 입천정 쪽에 닿는 기분을 느낀다.
- 위와 같이 하여 ‘아’ 소리를 내는 데 먼저 입안의 소리가 입 천정의 냉기가 닿는 부분으로 들려 올라가는 기분을 느껴야 한다.
- 이때 입(목)을 충분히 열어야 하는데 그 때문에 목이나 아래턱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래턱이나 입술은 무신경하게 두고 입천장과 목구멍이 위로 들리는 기분이어야 한다.
- ‘아’는 중간G음에서 시작해서 반음씩 올라가면서 또는 내려가면서 소리낸다.
- 다음은 스타카토의 표현을 해 보자. 목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배를 움직여 소리를 끊어내는 방법으로 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소리낸다. 호흡이 차 있는 복강으로부터 소리가 나가고 있는 입까지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복식 호흡을 이용하여 ‘하, 하, 하’하는 식으로 호흡을 끊어 ‘하, 하, 하’를 반음씩 올라가며 연습해 보자.

<그림 4>



- 실제적인 발성을 위한 연습곡 -

<악보 1>

하 하 하

아 에 이 오 우  
아 이

아 에 이 오 우 아 -

아 이 아 에 이 아 에 이 오 우 - - - 아

아 - 오 - 이 - 오 - 아 - 오 - 아  
아 오 이 오 아 오 이 오 아 오 아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아 - - - 오 - - - 아  
아 - - - 에 - - - 아

<악보 2>

쭈쭈 불뚝 짱짱

박경희 작사·조곡

쭈 쭈 이 쭈 쭈 이 쭈 쭈 불뚝이 불뚝이 불 (뚝) 불 (뚝)

짱 짱 이 짱 짱 이 짱 짱 하품이 하품이 하 하 하

앗 뜨거운 감자

박경희 작사·작곡

가 지개 격자 아 --- 하 품을 하자 아 ---

앗 뜨거운 감 자가 입 안으로 쏘옥 아 ---

아 - - - - - 아

횡 정 막 은 뚝 쭈 쭈 아 댓 베 은 뚝 불뚝 불뚝  
(횡정막을 넣는다) (이 댓베가 불뚝한다)

앗 짱 이 짱 하 짱 쭈 쭈 아 댓 베 짱

쭈 짱 쭈 쭈 쭈 짱 불 짱 불



## (2) 공명

공명은 소리를 울리는 것,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소리를 증대시키는 것, 가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 가성을 울려서 빛나게 하는 것으로서의 가창 발생시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 오직 성대만을 진동시켜서 나오는 발성은 빈약하고 약간의 거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비강이나 인두강, 인후강의 부분들이 공명이 잘 되도록 발생하면 아름다우면서도 성량이 풍부한 소리로써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또한 공명은 소리를 윤기있게 만들고 생기있게 만들어 소리를 풍부하게 해주면서 널리 울려 퍼지게 해준다.

비강 공명은 품위 있는 음색과 저음과 고음과의 연결 통로, 부드러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음 등에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강은 인두강과 함께 최대의 공명감으로 형태의 변화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공명감 중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입을 벌릴 수 있고 다물 수도 있으며 형태의 변화도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

입 모양은 발생하기 직전에 바른 입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동양인의 입천장은 서양인에 비해 입천장의 굴곡도가 얇기 때문에 입을 아주 크게 벌려서는 안된다. 발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손가락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높이면 적당하다.

## 4) 발음 지도

우리의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으며 노래는 가사를 발음하면서 노래한다. 입 모양을 바꾸는 것이 늦어지거나 입 모양이 정확하지 못하면 무엇을 노래하는 것인지 모르게 되며 템포가 느려지기가 쉬우며 리듬도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된다. 말의 뜻 즉, 노랫말을 잘 알아듣도록 노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모음과 자음은 모든 우리말들에 쓰이고 언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바르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음과 자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벌리는 방법부터 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입을 벌리는 방법은 입술에 많은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을 벌린다. 특히 입을 벌릴 때에는 턱과 입술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입을 열 때에는 아주 작게 열어서도 안되고 또한 너무 크게 벌리는 것도 좋지 않다. 한편 린다 스웨어스(Linda Swears)는 노래할때의 좋은 발음은 모음 발음의 통일성과 자음의 또렷한 발음에 달렸으며 좋은 발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중들이 모든 단어를 알아 들을 수 있으며 음악의 기분과 뜻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22)</sup>

22) Lindan Swears(이동훈 역), 「소년 소녀 합창 지도법」(서울 : 동진 음악 출판사, 1998)

노래를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보다 아주 과장되며 또한 청중으로부터 과장되게 들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공명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명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대화시에는 또다른 공명이 요구되므로 노래 부를때의 발음에 대한 세밀한 지도와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은 아동의 가창 지도시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한 실제 예를 들어 보았다.

(1) 다음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 보세요!

<입술을 잘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한 발음을 구사 하는 연습>

므라 므라 므므므  
 무라 무라 무무무  
 부라 부라 부부부  
 뿌라 뿌라 뿌뿌뿌  
 빠라 빠라 빠빠빠  
 폐라 폐라 폐폐폐  
 뻐라 뻐라 뻐뻐뻐  
 뵤라 뵤라 뵤뵤뵤  
 뵠라 뵠라 뵠뵠뵠

바밤바  
 오빠밥  
 빠빠용  
 빨대용  
 빨래관  
 뵤뵤뵤  
 큰과도  
 마보야  
 비빔밥  
 밤비노  
 뵤샤샤  
 뵤빠이  
 짬뽕면  
 뵤망치  
 코코밥  
 아빠차

(2) 다음 주문을 따라해 보세요!

"기프리" 숲속에 마귀할멈이 살고 있는걸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 일요일에 마귀할멈의 집에 놀러가서 몰래 마법의 주문을 슬쩍  
 가져왔어요. 미안하지만 다시 가져다 줄꺼예요.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못 기르게 하셔서 내가 마술을  
 부려서 강아지를 만들려구요.  
 얼마나 정신없게 마법 책을 들고 뛰어나왔는지 나뭇가지에 걸려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주문을 외우면 머리는 강아지인데 모통은 고양이거  
 나오는 거예요. 어무래도 내가 틀리게 외우는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 줄래요?  
 내가 지금 어디를 틀리게 하는지 얘기좀해주세요.  
 코코같이 귀여운 강아지를 꼭 기르고 싶운데....엉엉



마귀 할멈의 주문

내가 외운 주문

수리수리 술술살 강아지 벨릴리  
 기려라 마구나 킁킁길 모기오줌  
 빈대이빨 두더지 김밥  
 모기 뒷다리 2번째 털  
 슈나우저 말리퀴즈  
 부르독그 파앙구우  
 빨히히 부부웅 뒤로팻  
 술술스릭 쉬잉쉬잉 팽!!

수리수리 술술살 강양직 벨릴리  
 기려라 마구니 킁킁길 모기똥  
 빈대이빨 두더지 쿡밥  
 모기 뒷다리 3번째털  
 슈나우저 마리퀴즈  
 부르독그 화앙구우  
 히히빨 부부웅 뒤로 확  
 수리술술 쉬잉쉬잉 팽!!

(3) 정확한 발음을 해 보세요!

그믐달, 새옷, 넓은 세상, 슬기, 출연, 순수, 결정사항, 발발급

- 저 콩깍지는 칸 콩까지나 안 칸 콩까지나!
- 강낭당랑망방상앙장창강탕광항

(4) 역할을 나누어 직접 연극처럼 목소리를 흉내내며 서로의 목소리를 비교하여 들어본다.

산 양 :	(수심에 젖은 목소리로) 대왕님의 병환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더라.
토 끼 :	애초엔 고뿔 정도로 별 것 아니게 여겼는데.....
반달곰 :	누가 아니래, 하루나, 길어야 이틀만 견디면 가신 듯 나올 줄 알았지. 뭐..
너구리 :	(시큰둥하게) 시름시름 앓은 지가 꽤 여러날 됐는데도 매한가지라지?
토 끼 :	그냥 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우리가 나서도록 하자.
산 양 :	그래, 늦은 감이 있다만 좋은 방법을 궁리해 보자꾸나.
반달곰 :	용한 의원을 찾아 보는 도리밖에.....
산 양 :	누구누구해도 사슴만한 의생은 없을 거야.
너구리 :	(다급히) 모르는 소리마, 폭포골에서 도를 닦았다는 여우도 약을 잘 짓는다는 소문일 자자하더라.
반달곰 :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라 둘 다에게 맡겨보자. 두 가지 약을 쓰면 그만큼 더 빨리 효험볼지 아니?
토 끼 :	좋다. 그러자. 사슴은 해돋이에, 여우는 해넘이에 맞춰 약을 달여 올리도록 시키자.
산 양 :	그것도 괜찮겠군. 그럼 토끼는 사슴에게, 너구리는 여우한테 가서 부탁해라. (반달곰에게) 우리는 대왕님께 아뢰도록 하자.
너구리 :	(주적거리며) 그러자. 쇠뿔도 단김에 빼라더라.
모두들 :	그래, 그래

### 3. 가창 지도의 실 예

#### 1) 가창 지도의 준비 도입 단계의 지도 방법

가창이 실제 지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도하는 것은 가창 준비를 위한 도입 단계로서 신체를 바탕으로 한 몸 동작과 박자 감각을 익히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실제 지도의 도입 유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줄넘기 : 줄넘기는 흉부의 강화 연습의 하나로 요부의 근육을 단련시키기도 좋으며 양쪽 어깨와 흉근의 강화에 필요하다. 다소 개인차가 있으나 저학년은 10~50회, 고학년은 25~50회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 (2) 공치기 : 공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리듬박에 맞추어 튕겨 오르기를 하며 수준에 따라서는 공을 한번 튕겨놓고 한 바퀴를 돈 다음 받는 형식을 취한다.
- (3) 바람개비 불기 : 바람개비 불기는 아동들에게 숨이 꾸준하고 고른 흐름이 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 가를 보여준다. 너무 약하게 불거나 또한 너무 세게 부는 것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멈추게 할 수 있다. 아동들이 호흡과 공기의 흐름을 잘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 (4) 입술 트릴 : 입술을 이용하여 ‘푸’라는 발음을 통해서 숨을 내보내게 하여 입술이 계속 떨리는 것을 호흡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5)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문장을 읽고 그대로 아동들로 하여금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한다.
  - i. 코스모스가 한들 한들 거립니다.
  - ii. 잠자리가 날아갑니다. 참새가 쫓아 옵니다.
  - iii. 구름이 둥실 둥실 떠가네요.
  - iv. 코코가 노래합니다. 고양이도 노래합니다. 금붕어도 노래합니다.
  - v. 사자가 배가 곱습니다. 아기 얼룩말이 지나가네요. 사자가 달려갑니다.  
엄마 얼룩말 뒷발굽에 사자의 코가 채였습니다.
  - vi.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아이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엉엉 울니다.
  - vii. 개들이 마구 짖어댁니다. 밖에 나와 보니 도둑이 담을 넘습니다.

도둑의 다리를 붙잡으세요.

viii. 외나무 다리를 건넵니다. 기우뚱 기우뚱 거립니다.

저런! 그만 물 속에 풍덩! 빠집니다.


ix. 잠이 옵니다. 하품을 합니다. 코를 끕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를 위한 준비 상태로 몸 동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공명감과 복식 호흡의 유도 방법으로 입안에서의 소리가 울리는 위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아동의 신체를 이용한 행동이나 동작, 표정의 표현 활동들은 음악의 기초적인 창조적 표현, 개성적 표현들을 표출해내며 음악 요소의 표현을 다양화하여 창작의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으로부터의 내재된 사고와 자아를 창의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올바른 발성과 호흡에서 언급한 내용을 상기시키며 선을 그려보면서 노래 부르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 노래에 대한 해설 -

(1) ○ : ♪ ♪ 리듬의 구별

(2)  : 그 박자 만큼 길게 소리내기

(3) △ : ♪ ♪ 리듬의 구별

(4) < : 점점 세게를 유도하면서 ff표현으로 이끌어낸다.

(5)  : 표정을 유도하여 음정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다.

# 웃놀이

( '91년 제9회 은상 )

전유순 작사  
이용수 작곡

보통 빠르기로 흥겹게

Piano introduction in 4/4 time, featuring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in both hands.

*mf* 신나게!  
 웃 나와라 - 모 나와라 - 신나 는웃 놀이에 -

*mf* 온가족이 - 모두모여 - 웃음 꽃피 어난다 -

*mp* 웃가락을 더 높이 던져보자 - 모가나아이길 텐 데

얼 싸종다 또모가 나 왔구나 - 덩 실덩실춤을 추

자 *mf* 처음처럼 신나게!  
 웃 나와라 - 모 나와라 -

신나 는웃 놀이에 - 온 가족이 -

흥 에겨워 - 어깨 춤질로난다 -

3) 다음은 곡을 들려준 후 가사를 잘 듣고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생각을 가지고 창의력을 표현하도록 하는 예시곡이다.

<악보 4>

**네잎 클로버**  
(’96년 제14회 대상)

경쾌하게 걸음걸이 빠르기로 박영신 작사  
박영신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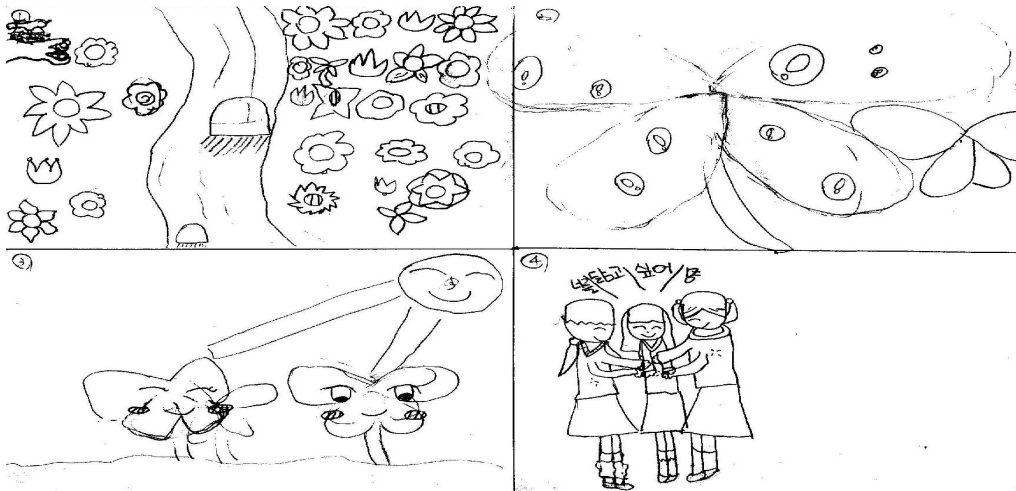
①  
깊고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흐르는  
작은샘터에 예쁜꽃들사이 에 잘 작숨겨진  
이 슬며 고피어 난 네잎클로버 탈, 란라 한 - 일랄랄라  
두우 - 일랄랄라 세 이 일랄랄라 네 이 일  
행운을 가져다 준 다는 수줍은얼굴의미  
소 한즐기의따스 한 햇살받으며  
②  
희망으로가득 한 나의친구야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 - 꿈담 - 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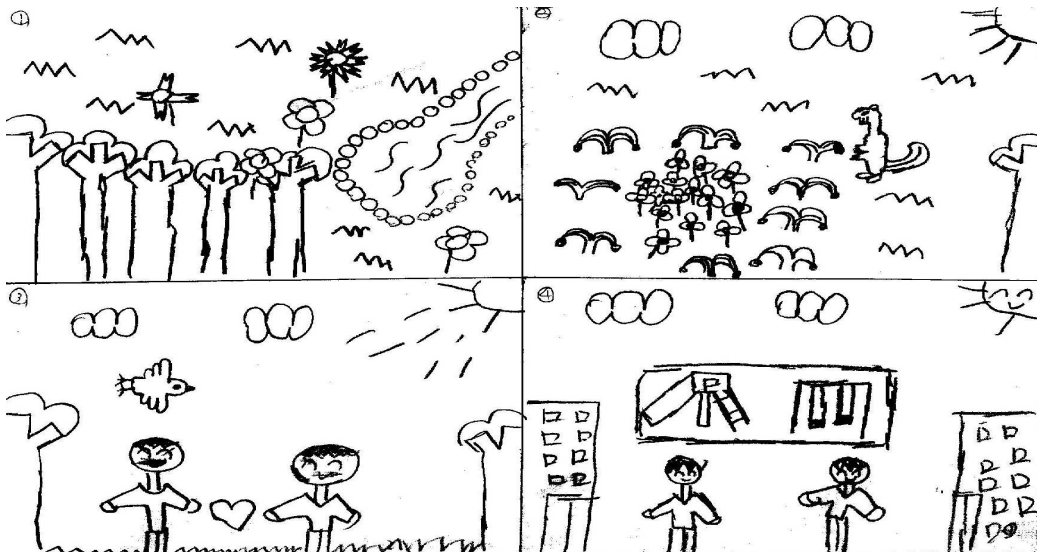
다음은 아동들에게 위 노래 가사를 네 단으로 나누어 읽어 주고 노래 활동을 끝마친 후 아동 개개인이 상상하거나 가사의 내용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한 것을 수록했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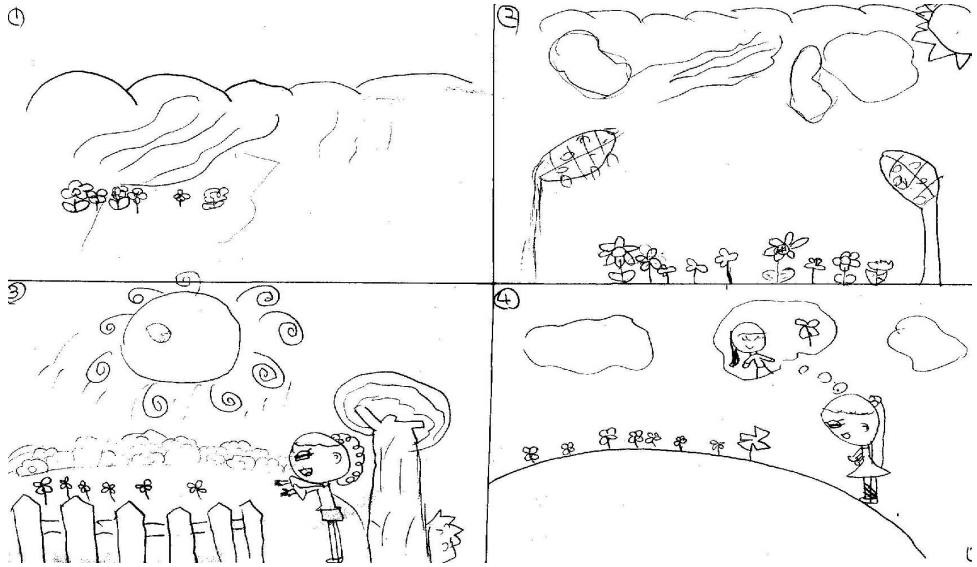
① 용두 초등학교 1학년 조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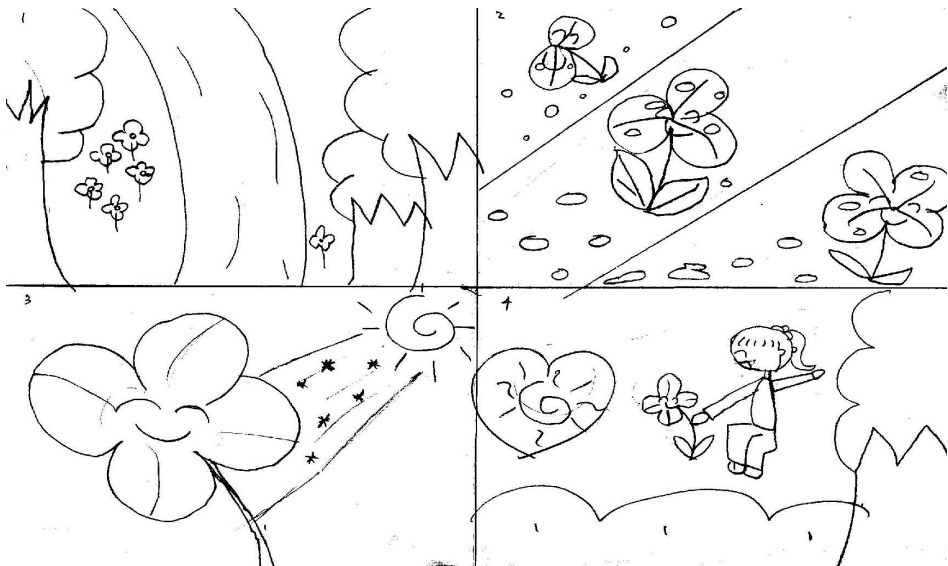
② 본촌 초등학교 3학년 김륜광



③ 본촌 초등학교 3학년 이규미



④ 본촌 초등학교 4학년 김연아



-노래에 대한 해설-

(1) ☆ : 노래 중간에 있는 쉼표를 유의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한다.

(2) ↷ : 한 음절을 2~3배로 늘여서 부르게 한다. 예) 는 → 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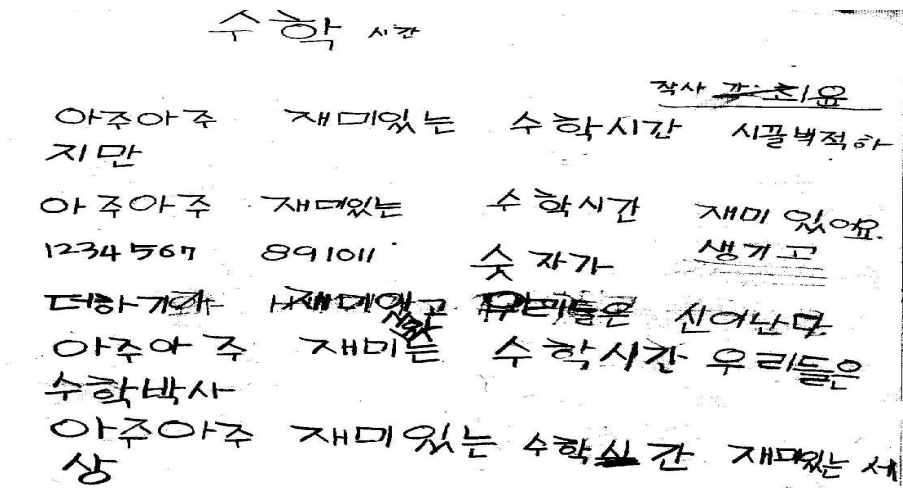
(3) △ : 당김음

4) 다음 곡은 학교에서의 '미술 시간' 상황을 직접 자기 자신이 작사가가 되어 보는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고 상상하여 '모음'과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하고 리듬을 살려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미술 시간의 상황을 음악 시간 등으로 주제를 바꾸어 여러 가지의 노랫말을 넣어 선율과 흐름결의 조화있는 배합과 음악의 속도, 강약 등의 음악의 기본 요소들을 활용하여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주제를 바꾸어 여러 가지의 노랫말을 넣은 실제 예이다.

<그림 6>

(1) 본촌 초등학교 1학년 최 윤



(2) 본촌 초등학교 1학년 김미현

제목 국 어시간 작사 김미현  
 가나다라 재미있는 국어시간 시그럽긴 하지만  
 // // // // // 재미있어요.  
 가나다라 바스 도박독박 글씨가 생긴  
 재미있는 글자들이 주렁주렁 열리네  
 고노도로 재미있는 국어시간 우리들을  
 글작가 // // // // // 글자들  
 세상

(3) 본촌 초등학교 3학년 김륜광

### 바둑 시간

김륜광

똑똑똑	조용한	바둑 시간	조용하긴	하지만
//	//	//	생각을	잘해야 되
그이유는	바로바로	상대방에	말을 마요	그
오운도운	가르쳐준	바둑 선생 님	잘 가르쳐요	
생각해서	잘두는	바둑 시간	공부 해야	되는 시간
//	//	//	만들 많이	따야 되-

(4) 본촌 초등학교 3학년 이규미

국어시간

이규미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자카다파라랑. 국어시간  
쓱쓱쓱쓱~ 쓱쓱쓱쓱~  
물루랄라~ 물루랄라

국어시간. 재미있고 신나요.  
열심히도 하지요.

아름다운 글자만 들어지고,  
멋진 글자도 들어지네.

가나다라 마바-사  
기나 디리 미 배-시

국어시간 신이네요, 재미있어  
국어시간

우리들서쌍



(5) 본촌 초등학교 4학년 김연아

사회시간

작사 : 김연아

외워야만 공부되는 사회시간. 집중으로 공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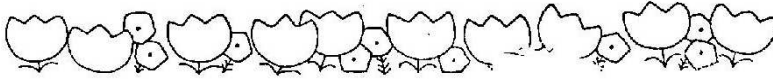
외워야만 공부되는 사회시간. 자신있어요.

유리병 옮긴사배 외우자. 백제의 도움지.

사회공백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지네.

외워야만 공부되는 사회시간. 즐겁고도 어렵지 -

외워야만 공부되는 사회시간. 재미있어요.



## 미술 시간

('94년 제12회 입선)

이소현 작사  
안갑상 작곡

조금 빠르고 가볍게

\* '뚝'라 입모양을 정확히

*mp* 리듬을 살려서 *mf* *lll*

하 하호호시끌벅적 미술 시간 시 끄럼 긴하지 만  
하 하호호 아이우오 음악 시간 기 다려지는 시 간

*mp* *ll* *mf* *lll*

하 하호호시끌벅적 미술 시간 ★ 새 미있어요 -  
하 하호호 랄랄라라 음악 시간 재미있어요

*mp* *ll* *mf* *ll*

빨 주노초- 파 -남보- 아름다운무지 개 생 기고-  
라 라 도파 마 레미도 야름다운노래 - 소 리가

*mp* *ll* *mf* *lll*

탐스러운- 빨 간사과- 주 령주령 열리 네  
너랑하고 날 아가서 나의꿈을 펼치 네

*mp* *ll* *mf* *lll*

하 하호호시끌벅적 미술 시간 우리들은미술 사  
하 하호호 아이우오 음악 시간 우리들은음악 가



*mp* *ll* *mf* *lll*

하 하호호시끌벅적 미술 시간 ★ 우리들 세상 -  
하 하호호 랄랄라라 음악 시간 우리들 세상



5) 이 곡은 우리 신체의 바탕이 되면서 아동들이 음악 안에서의 놀이를 찾아 음악 르로부터의 적응력을 기르고자 한다. 노래와 놀이를 함께 하면서 신체적 표현과 음악 외적인 면을 표현하며 음악적으로는 왈츠리듬이 사용되면서 직접 춤을 춰보며 실감있게 동요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악보 6>

 **봄동산** 

즐겁게 주기환 작사  
주기환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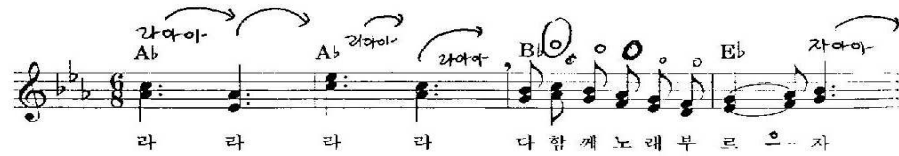
봄 동 산 꽃 동 산 별 나 미 가 춤 추 고  
푸 르 른 들 판 엔 예 썬 꽃 이 반 기 고



시 냇 불 줄 줄 줄 즐겁게 노래 해  
새 파 란 하 늘 엔 종 달 세 노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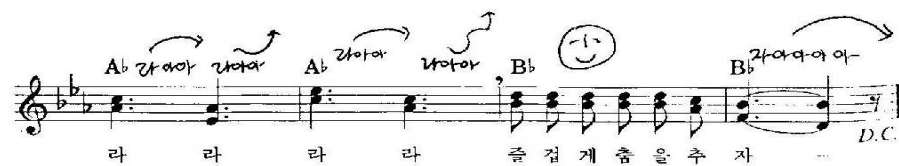
*Fine*

가아아 가아아 가아아 가아아



라 라 라 라 다함께 노래 부르 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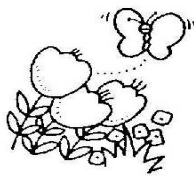
가아아 가아아 가아아 가아아 가아아



라 라 라 라 즐겁게 춤을 추 자

*D.C.*

교육내용



1. 왈츠에 대하여 알아보고 춤을 춰 보세요.
2. 이 노래는 '아' 발음이 많이 나옵니다.  
'아' 발성을 정확히 하세요.
3. 우리 노래를 듣고 봄이 더 빨리 오게 즐겁게 노래합니다.



6) 다음 곡은 곡의 제목과 연관성을 지니는 가을 풍경들에 대해 묘사한 문장들을 들려주며 비워져 있는 부분에 연상되는 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서 악곡에 대한 분위기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노래에 대한 호감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다.

<악보 7>



### 가을 들판

('99년 제17회 금상)

김형주 작사  
이나염 작곡

1. 키 다리 허수 아 비  
2. 키 다리 허수 아 비

한 낮에 꾸벅 꾸벅  
넉그림 중을 치면

늘려온 아기 참새 허수 아 비 깨우고 -  
늘려온 아기 참새 감쪽 놀라 포로뿔 -

고추잠자리는 동그렇게 빙빙  
고추잠자리는 동그렇게 빙빙

들판을 맴돌다 가을 나들이 가네 -  
들판을 맴돌다 가을 속으로 숨네 -

벼이  
덤요양!

삭렁 - 익어가느 황금빛 - 노랫소리 한들  
- 코스모스 고운 빛 - 노랫소리 지나

가을에 죽의!

한가 들 가을바람 타고 - 친구 몸 - 두동 - 실  
가 들던 실바람 살머시 - 들판에 - 입맞추고

해는 뉘엇뉘엇 서산을 넘어가고  
해는 뉘엇뉘엇 서산을 넘어가면

노란 가을 들판 빨- 짙게 익어가네 -  
노란 가을 들판 빨- 짙게 익어가네 -



다음은 가을의 풍경을 묘사한 문장들이다. 빈칸의 낱말을 맞춰보자.

파아란 하늘 위를 나는

빨간

과수원의  는

뒤늦은 뜨거운 햇살에 알알이 잉글어가고

들판의  들은 추수를 기다리며

노랗게 익어갑니다.

이번 보름달이 뜰때가 되면

송편을 먹는 즐거운

언제부터인지

저녁이면 불어오는 시원한

저녁 들판을 산책하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가을 벌레들의 합창

도무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

강렬한 여름 햇빛을 추억으로 보내며

벌써 하얀 눈 내리는

을 기다리는 이 성급함.

7) 다음 곡은 실제로 노래를 불러보고 난 후 사후 활동의 하나로 “토끼풀”이란 노래를 익힌 후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에 나가서 직접 토끼풀을 따서 꽃시계, 꽃 목걸이, 꽃 발지를 만들어 보고, “파란 색종이”라는 곡을 익힌 후 색종이를 이용하여 여러종류의 새나 종이배, 비행기 등을 직접 접어보고 날려 보는 활동을 통해 보다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부여 할 수 있다.

토끼풀  
(’99년 제17회)



정겨운 마음으로

아 피트를저... 나 공원가는길 좁 다 란 풀밭사이 로

밤 실방실웃 는 하얀꽃송이 토끼 풀 이나를반겨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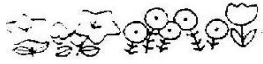
토끼 풀 토끼 풀 꽃시계 - 기 꽃시계를 손목에 차 고  
토끼 풀 토끼 풀 복건이 - 꽃복건의를 어깨에 끼 고

해구름 달구름 밤어가는길 그 언덕 에 놀던 친구 야  
머무람 다래람 인어가는길 그 길 따 라 놀던 친구 야

토끼풀을보던 서 편지를써요 다 정 했 던 얼굴그리 며 미어

다 정했던그얼 굴 칼 짝웃어요 풀 반 에 토끼풀밭 에





# 파랑 색종이

('99 제2회 EBS 고운노래 우수상)

최향숙 작사  
손정우 작곡

$\text{♩} = 130$

A D Bm E7

푸 른 하늘 에 - 새 를 접 어 날 리 자 - 아아아

하 안 물보 라 - 아아아 종이 배 를 띄 - 우듯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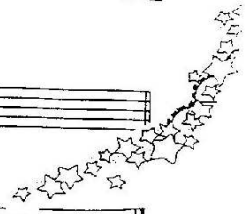
파 랑 색종 이 - 내 마 음 편 지

남하늘 에 - 별빛 처 럼 - 오색 불 을 켜 리 니 -

새 애 애 를 접 어 날 리 자 - -

꿈 꾸 는 아 - 이 아 아아아 -

취파 람 을 불 더 새 가 되 어 - 새 애 가 되 어



8) 가창지도시 집중력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의 예이다.

(1) 집중력 - 읽기 연습

다음 글을 읽으면서 “산”이 나오면 박수를  
“가재”가 나오면 허벅지를 “넷가”가 나오면 뺨을  
“엄마”가 나오면 궁뎅이를 “요정”이 나오면 무릎을 치세요



단풍으로 알록달록한 이 멋진 산을 봐! 얼마나 멋있어?  
이런 청명한 날씨에 단풍구경은 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놀이만 하는 친구들은 너무 불쌍해.  
요즘 같은 계절에는 산으로 나가야지!  
산에 가서 경험했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까?  
아! 글썽! 그게 몇 주일 전이야.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  
그 산이 무슨 산이더라..... 하여간 이름은 잊어버렸어.  
하지만 큰 넷가를 끼고 있었어.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넷가에서 다슬기를 잡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  
엄마는 먼저 산에 가자고 하셨지만 난 먼저 넷가에서 놀고 싶었거든.  
그 넷가에서 놀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 넷가에서 가재도 잡았거든.  
가재가 살면 물이 엄청 깨끗한 거라고 엄마가 그러셨어.  
요즘은 가재가 살고 있는 넷가를 찾기가 아주 힘들대.  
가재를 잡다가 일어서 보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거야!  
난 너무 놀랐어. 뭐가 무섭냐구? 애 줘 봐! 그런 깊은 숲 속에서 혼자 있어봐!  
얼마나 무서운데!  
얼른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찾는데 무언가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거야! “우리 집에 놀러갈래?”라고 말야.....  
놀래서 옆을 보니까 꼭 텅커벨처럼 생긴 요정이 내 귓가를 날아다니면서 자기 집에 꼭 같이 가자고 조르는 거야. 부탁이 있다는거야.  
너도 알지만 내가 남의 부탁은 거절을 잘 못하잖아.  
게다가 생전 처음 보는 요정이고 또 그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했어.  
엄마한테 가고 싶기도 했지만 먼저 요정의 집에 가기로 맘을 먹었어.  
그래서 갔지...  
다시 말해서 산 속의 넷가에서 가재를 잡다가 요정을 만난거지.  
엄마가 만약 옆에 계셨다면 요정은 나한테 오지 않았을거래....



(2) 난 무엇일까요?

- ① 설날에 먹는 음식이에요.
- ② 과일인데 길죽하고 노란색이에요. 껍질을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 ③ 난 세상 어디나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날 본 사람을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날 느낄 수 있죠.  
특히 커튼이 펄럭이면 내가 온 줄 알죠.
- ④ 난 쥐를 잘 잡아요.
- ⑤ 내 껍질을 벗길 때는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나요.
- ⑥ 겨울에 내가 없다면 아주 심심할거예요.  
난 하늘에서 내려와요.
- ⑦ 아이들은 나를 잘 먹어요. 하지만 먹은 후에 입을 잘 닦으세요.
- ⑧ 내가 없다면 이층에는 올라갈 수 없을 걸요?
- ⑨ 봄이 되면 내가 피죠. 난 부끄럼을 많이 타서 분홍색이에요.
- ⑩ 학교에 가면 내가 꼭 필요해요.
- ⑪ 내가 없으면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살 수 없죠.
- ⑫ 춤을 출 때는 꼭 나를 필요로 하죠.
- ⑬ 난 가시가 있어요.

(3) 다음 빈칸의 낱말을 넣어보세요.

- |   |   |
|---|---|
| 1. 한 <input type="checkbox"/>                             | 15. 책 <input type="checkbox"/>                          |
| 2. 종 <input type="checkbox"/> 컵                           | 16. <input type="checkbox"/> 과                          |
| 3. <input type="checkbox"/> 머 니                           | 17. <input type="checkbox"/> 유                          |
| 4. 대 <input type="checkbox"/> 리                           | 18. 목 <input type="checkbox"/> 이                        |
| 5. 상 <input type="checkbox"/>                             | 19. <input type="checkbox"/> 구 공                        |
| 6. <input type="checkbox"/> 상                             | 20. 자 <input type="checkbox"/> 기                        |
| 7. 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  | 21. 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8. 개 <input type="checkbox"/> 별 <input type="checkbox"/>  | 22. <input type="checkbox"/> 미 꽃                        |
| 9. <input type="checkbox"/> 뚜 라 <input type="checkbox"/>  | 23. <input type="checkbox"/> 동 <input type="checkbox"/> |
| 10.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비 | 24. 화 <input type="checkbox"/> 실                        |
| 11. 칼 <input type="checkbox"/> 수                          | 25. <input type="checkbox"/> 래 방                        |
| 12. <input type="checkbox"/> 까 스                          | 26. 마 <input type="checkbox"/> 크                        |
| 13. 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 | 27. 신 문 <input type="checkbox"/> 달                      |
| 14. <input type="checkbox"/> 아 지                          | 28. 치 <input type="checkbox"/>                          |

(4) 숨은 그림 세상 <그림 7>



<< 칫솔, 망치, 커피잔, 못, 화살표, 도마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지도하였다. 주어진 노래를 작고, 크게, 빠르게, 느리게, 레가토, 스타카토 등의 악상과 속도를 사용하여 어떻게 노래의 느낌이 달라지는지 생각하게 했으며 주어진 악곡을 즉흥적으로 가사를 바꾸어 부르거나 가사가 반복되거나 같은 흐름결 반복의 기능을 활용하여 노래를 여러 모습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하였다. 노래에 대한 기능이 순차적이거나 놀이 등의 가벼운 시도로서 유도된 점도 있지만 음악의 본질면에서 볼 때 아동들이 자기 모방적으로 되풀이하고 반복함으로서 창의력을 표출할 수 있는 소규모의 그룹 지도의 목적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두성 발성 및 아동의 가창 지도 교사의 자질과 역할

### 1. 두성 발성에 대한 논란 및 두성 발성의 특징

#### 1) 두성 발성에 대한 논란<sup>23)</sup>

두성 발성에 대해서 좋으나 나쁘나라는 논란이 있다. 아니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말을 할 때의 소리와 노래할 때의 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말을 할때의 소리 그대로에 가깝도록 노래한다. 물론 어른들의 경우에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대중 가요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많은 대중에게 친근감을 준다. 그들에게는 소위 벨칸토 발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에 가깝게 노래하는 소리는 꾸밈없는 그대로의 소리 즉 생소리 즉 육성을 얘기한다. 이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여겨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며 또한 이런 소리로 독창을 해야 크게 들린다.

하지만 누에가 누에고치 생활을 거쳐 나방으로 변신하듯이 인간의 목소리도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어나서부터 변성기이전까지의 소리로서 하나의 생이 있고 중년까지의 또 하나의 생이 있고 그 뒤부터는 쇠퇴기를 갖는다. 우리 인간의 목소리는 두 번의 황금기를 갖는데 이를 경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뚜렷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레고리안 찬트 시대 즉 중세 이후에 독일·영국·프랑스·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천여년 동안 수도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어린이의 두성 발성을 더없이 아름다운 독특한 매체로 받아들여와 이러한 소리를 하나의 가장 완벽한 악기로 여겨오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소리에서의 생소리는 성대에 힘을 더 주어야 하고 두성발성은 성대에 훨씬 덜 힘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소리 즉 육성은 성대의 울림을 세계하여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고 두성은 성대의 울림 자체는 약하나 머리의 울림을 통하여 소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육성으로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떤 물체를 세계 때리면 쉰 소리가 나는 원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두성은 가냘픈 현이지만 울림통을 울려서 소리에 윤기와 크기를 더하는 현악기의 이치와 비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육성으로 노래해도 좋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1) 성대에 무리한 힘을 주어야 하므로 성대에 쉽게 무리가 온다. 따라서 노래를 오랫동안 하고 싶어도 짧은 시간동안으로만 한정되며 변성기 쯤에 이르면 성대가

23) 이동훈 「합창 지도법」 (동진 음악 출판사, 1997) P200-219



극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육성으로 노래하면 성대 근육이 파열되며 평생 선듯한 목소리를 지닐 수도 있다.

(2) 낮은 음에서는 괜찮으나 높은 음에 이르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또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음색이 너무 또렷이 바뀌어 매끄러운 프레이즈의 노래가 될 수 없다.

(3) 소리가 무겁고, 어더워지기도 하고, 쉼소리가 나기 쉽다.

(4) 어린이들이 함께노래를 부를 때 각자의 개성이 두드러져 통일성있는 융합의 화음을 이루기가 어렵다.

가창 수업시 반드시 두성 발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를 껍뻍지르는 것보다는 두성에 가까운 고운 소리로 노래하게 하면 성대에 무리가 없어서 좋다. 큰 소리보다는 작은 소리에서부터 아름다움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 두성 발성의 특징

어린이의 두성 발성을 잘 다듬어 지도하면 어른들의 소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아름다움이 당겨져 있다. 다음은 두성 발성에 의해 잘 다듬어진 어린이 소리의 장점이다.

- (1) 소리가 가볍다.
- (2) 소리가 멀리 전달된다.
- (3) 비브라토가 거의 없다고 할만큼 소리가 순수하고 맑다.
- (4) 소리에 초점이 있다.
- (5) 소리에 생동감과 적당한 탄력이 있다.
- (6) 울림이 좋다.
- (7) 음정이 정확하다.
- (8) 음색이 맑고 깨끗하다.
- (9) 노래할 때 몸에 긴장이 생기지 않는다.
- (10) 음역이 매우 넓다.

하지만 아동의 가창 지도 방법에서의 육성으로 노래부르는 것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다. 두성 발성을 아동의 노래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가사를 어떻게 발음하는가와 크게 관계가 있다. 이에 교사는 아동에게 이론적인 설명으로만 소리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므로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소리를 위로 띄우라는 등의 추상적인 이론적 설명보다는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모방이 될만한 아동의 소리를 들어보게 함으로서 그것을 모방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도 좋다. 이에 교사는 아동들로 하여금 육성과 두성을 고르게 사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지속해야 될 것이다.

## 2. 아동 가창 지도 교사의 자질과 역할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으로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작용으로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적인 특성이 인격적으로 서로 상호 접촉하고 교류하여 새로운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이에 교사는 부단히 자기 수양과 교사의 자기 관리로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자주적이며 개방적인 학습 활동을 추구하므로 아동들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한 사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의 자질과 노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문화를 보존하고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후대에 이를 전해주는 임무 또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아동의 흥미·태도·가치관·신념과 신체적 측면에서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즉 전인적인 발달을 이끌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사의 자질은 교사의 유능성을 말한다. 곧 교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으로 유능한 교사와 훌륭한 교사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뜻한다. 하지만 교사의 자질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언제나 논의되고 추구되어야 할 방향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생은 교사와 함께 자신이 습득해야 할 가치와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을 함에 있어 부분적인 특성의 훈련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사람됨’을 강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배제하며 자아를 충분히 개발해야 할 것이며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 본인 자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는 혁신자로서의 교사, 연구자로서의 교사, 탐구자로서의 교사상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sup>24)</sup>

즉 음악 교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인내, 겸허한 태도, 개방성과 함께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즈음 교사들은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들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단 하나의 지도 방법만을 고집한다. 피교육자가 정신적, 신체적, 지적인 발달의 정도가 각각 모두 다르며 집단의 특성이나 성격, 개인의 성향이 다르므로 그러한 성향을 고려하여 아동 각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자극과 격려를 해주며 상상력을 유도하고 창의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교사는 아동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과 가

---

24) 하영철 편저 「실전 교육학」 형설 출판사 P41

능성, 자유를 존중하며 사회생활에서의 협동에 의해 교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단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여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하여 따뜻하고 애정을 지니며 아동을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찰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어린이들은 누구의 간섭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에 나타나는 그들의 경험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성인의 방법과 요령을 먼저 알려주고 어떤 일을 시도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때로는 어려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창의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아이들만의 방법들이 비록 긴 시간을 요구하더라도 그만큼 더욱 값진 열매를 맺고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악에서도 단순한 연주의 기초적인 능력여부에 따라 음악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연주 능력하나로 음악성의 지표라고 한다면 억지로 암보한 두·세편의 시의 낭독이 문학적인 감정의 지표인양 말하는 것 이상으로 부적합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음악 교육의 중요한 관점은 음악의 구조적인 개념을 어떠한 교수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느냐는 것이다. 즉 아동들로 하여금 어떻게 음악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하는가가 중요한 음악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도력이 회박해지는 것과 아동들의 음악적 발전도가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음악 교육 계획의 전체를 각각의 영역에서 음악의 개개인의 활동이 내면적으로 일치하도록 음악 교육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는 아동들에게 동기 부여의 첫 번째 근원이 된다. 마냥 ‘참 잘한다’는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듣기에 좋은 칭찬보다는 하고자하는 의욕과 이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동기의 부여가 개인 지도를 함에 있어 동기나 자극을 주는데 부족함을 주고 기능적인 테크닉 연마에만 치우치게 되고 쉽게 권태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교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그룹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악적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음악적 창조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교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교사는

첫째, 나는 여러명의 아동들을 한꺼번에 지도하기를 즐겨하는가?

둘째, 그룹 활동을 조직하여 아동들을 흥미있게 이끌 자신이 있는가?

셋째, 그룹 지도의 아동들이 개인 지도로 배울 수 있는 정도 만큼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sup>25)</sup>

---

25) 고덕인 「효율적인 그룹 피아노 교수법에 관한 연구」

또한 창조적인 음악적 능력도 음악 교사로서의 중요한 자질이겠지만 음악교사는 음악 문화의 다양성과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교사이어야 하고, 음악적인 구조와 개념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탐구하는 교사이어야 한다. 더불어 음악에 대한 자신의 여러 가치관이나 사고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고 항상 열려있는 개방적인 교사이어야 하겠다.

다음은 아동을 지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유의점에 대해 나열한다.

첫째, 아동들에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둘째, 아동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예시와 보기를 제시해 준다.

셋째, 소규모의 그룹 상호간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다른 아이들에 비해 미흡하거나 연결이 되지 못하는 생각들은 교사의 현명하고 재치있는 음악적 도움을 제공한다.

다섯째, 제시되고 있는 곳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면 좀더 음악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준다.

여섯째, 그룹 활동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우면서도 규칙을 지킬 줄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아동의 가창 학습이 소규모 그룹을 통하여 모방으로부터 출발하여 아동 스스로가 음악적인 이해와 구별을 가지고 음악을 듣고 배우고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음악 연주를 위한 음악적인 테크닉과 기술을 배우고, 또한 아동 스스로의 음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동을 지도함에 있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교사의 기본 자세를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 V. 결론

인간은 노래를 통하여 음악을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며 음악을 만드는 등의 노래를 기반으로 하여 음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음악활동 중에서 가창 영역은 음악 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서 인간에 대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장 쉽고도 깊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겠다. 때문에 아동기에 가장 안전되고 자기 표현이 기회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자연스러운 가창을 유도하며 음악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갖게 함으로서 아동기에 가창 영역이 최대한 발휘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만 한다.

이에 아동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가창 지도를 위해서는 가창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도하는 교사의 방법에 의해 아동의 음악적인 흥미도와 음악적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거나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가창 영역에서 제시하고 가창 지도 방법을 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신체적 활동과 놀이, 미술 활동 등과 연계하면서도 고운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고 창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노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악곡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음악적인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도록 소규모 그룹지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오늘날 지금까지도 거의 가창 지도를 개인 지도에 의해 의존해 왔으며 현재에도 개인 지도에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능위주의 지도결과에만 치우치게 되는 부분에 있어 아동들이 타율적이 됨과 동시에 음악 그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 있으며 폐쇄적인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소규모에 의한 그룹 지도를 통해서 아동은 교사의 지시와 명령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에 대한 개념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동함으로서 음악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교사와 부모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음악적 활동에 참여하고 노래에 대한 표현의 적극성과 집중도가 매우 컸다. 또한 그룹활동을 통한 교육방법을 접해보지 못한 아동에 있어 표현을 하는 것에 처음에는 다소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인 면들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며 구성원 서로에게 때로는 협력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교사 중심적인 지도가 아닌 아동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되면서 아동들이 먼저 가창 수업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그룹의 구성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성향을 보여 나타났지만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서의 즉, 음악이란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때론 벽찬 감동도 주며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으로 음악활동에 대한 기대와 감

동을 심어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악보에만 의존해서 부르거나 교사의 선창에 따라 듣고 부르던 것에만 그쳤던 아동들에게 놀이를 통한 신체 활동을 통해 몸이 경직되지 않고 부드럽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아동에게는 접근이 어려웠던 두성 발성을 복식 호흡과 공명감의 열림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발성의 느낌을 전달하고 느껴볼 수 있었다.

자기 중심적인 아동들에게 노래를 통해 상상의 이야기를 꾸며 보고, 그려보기도 하며, 신체를 이용한 놀이나 게임, 직접 작곡가, 작사가가 되어 음악에 대한 내면적인 표현과 외적인 표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으며 내면적인 자기 자신 안의 세계에서 나와 자기 밖의 세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창의 최선의 방법은 즐겁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노력에 많이 달려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동의 능력과 감성을 고려하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 따라 노래를 재미있고 즐겁게 지도를 한다면 아동의 음악성이나 창의적인 표현들이 표출됨은 물론 진정으로 아동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아름답게 느끼고 인식하여 음악을 사랑할 줄 알며 음악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가창을 지도하는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교육에 적용시키는 기술과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탐구하고 숙련시켜야 하며, 아동의 능력과 개성을 인정해주면서 아동의 입장에 서서 아동들이 교육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며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종철 「기능의 교육」, 서울 : 배양사, 1969
- 길애경, 임미경 「초등 음악 지도법」 서울:수문당
- 무리이 야스지 외 3인 공저, 「음악 심리요법」, 서울·삼호 출판사, 1991
- 박경희 「초등 피아노 교실」, 삼호뮤직 2003
- 안재신 「음악과 음악 교육에서의 상상력」, 한국음악교육학회 음악교육 연구집
- 유덕희 「놀이와 음악 지도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교육학회, 음악교육 연주집 제 13집, 1994
- 이강숙 「음악 교육론」, 실천 문학사
- 이동훈 「합창 지도법」, 동진 음악 출판사, 1997
- 이영미 「아동의 삶과 동요적 감수성」, 한국음악교육학회 음악교육연구집, 1993
-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흥수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정세문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 : 창지사, 1986
- 하영철 편저 「실전 교육학」 형설 출판사
- 한용희 「한국의 동요」 서울 : 세광 음악 출판사교육 인적 자원부, 2002
- Musell J. L. 「음악교육과 인간 형성」, 서울 : 세광 음악 출판사, 1987
- Swears Lindan 「소년 소녀 합창 지도법」, 서울 : 동진음악출판사, 1998
- 
- 고덕인 “효율적인 그룹 피아노 교수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 박은주 “어린이의 창작 동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 위자량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가창 교수 방법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7
- 이보영 “아동의 올바른 가창 지도 방법”, 대구 카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1
- 최진경 “유아·아동의 효율적이 발성지도 및 가창 지도안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